

2020 국감, 현장 속으로

도로공사 추진 검토 중인 고속도로 사업 '전북 소외'

총 연장 814km 중 전북은 단 29.2km에 불과 민주 김윤덕 의원, "건설 추진 확대해야" 주문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검토 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전북지역 소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사진)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2017.1 고시)에서 제시한 중점추진 11개 사업, 추가검토 노선 14개 사업 중 전북지역과 연관된 사업은 동서3축 무주-성주 구간 단 1건에 불과했다. 민자고속도로 추진계획 16개 사업도 남북1축지선 평택-익산 구간으로 단 1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전북지역이 포함된 2건의 사업마저도 전체 사업 구간 중 전북지역 공사 구간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검토 중인 25개 사업(별첨 자료)의 주공사 구간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이 7건, 대구·경북 지역과 강원 지역이 각각 5건, 충청 지역 4건, 부산울산경남 지역 3건인 반면, 호남 지역은 강진-원도 단 1건에 불과했다. 공사 사업비로는 대구 경북 지역이 5건 9조3,658억원 규모로 가장 컸고, 강원 지역 8조7,308억원, 수도권 지역 6조9,994억원 순이었다. 전북지역 공사구간만 살펴보면 전국 25개 고속도로사업 전체 구간 814km 중 단 29.2km로 전체 구간의 3.6%에 불과했고, 전체 사업비 33조 4,837억원 중 1조 649억원(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



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지역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야 하며,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주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과 부안-남원, 남원-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계획에 포함 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위기업종 사업장, 연금 체납액 800억

민주 김성주 의원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2600곳... 근로자 연금수급 피해 우려"

코로나19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금수급에서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위기업종의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수는 4,29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행업 사업장이 2,16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절반에 달했다. 업종별 체납 규모를 보면 관광은 송업 360개소에서 689억의 체납이 발생해 위기업종 가운데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어 여행업종에서 39억원, 관광숙박업 28억원, 전시·국제회의업 20억 원, 공연업종 13억원 순으로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발생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가 2,600개소에 달했고, 2개월 체납 사업장은 493개소, 1개월 체납 사업장은 1,197개소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완납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관광·운송·여행업 등 코로나19로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위기업종 사업장의 체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최대 3개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한

시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단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미징수가 사업장가입자의 피해를 막기에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근로자 연금 수급 보호를 위해 기여금 개발납부 제도가 있지만, 원천공제로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사업장체납분을 추가로 납부해도 가입 기간의 절반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침체 위기에 관광·운송·여행업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다.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장기체납과 폐업으로 사업장가입자들이 연금 가입 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올 4차

혁신시제품 도내 3개 선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20년도 제4차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으로 선정된 3개 업체 중 도내 3개 기업의 제품이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자체 예산으로 구매 후 공공기관에서 사용, 그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 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도내 혁신시제품은 서해로프제강주식회사의 'PE코팅을 통하여 내구성을 증대시킨 LED발광로프', 농업회사법인 까름 주식회사의 '벼 또는 종자 발아 생육을 위한 친환경 자연분해 멀칭재', 주식회사 일루베이션의 '비접촉식 양면 모바일 체중관리기(VIEW)' 등이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도내 창업·벤처·혁신기업이 조달시장에 많이 진입될 수 있도록 업체 발굴 및 조달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인삼 유전자형, 빠르고 정밀하게

농진청, KASP 분자표지 개발 활용시 하루 15만점 분석 시간 10분의 1로 단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인삼 유전자형을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고효율 분자표지를 새로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삼 육종에 필요한 핵심 집단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자표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삼은 유전정보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이질사체) 유전체를 연구하고 분자표지를 개발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번에 농진청이 새로 개발한 분자표지는 열거시열 변이 탐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기존 분자표지보다 유전자형 분석에 드는 시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연구진은 핵 유전자정보(게놈)가 갖는 복잡성을 피하게 위해 재조합이 일어나지 않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완전 해독하고 비교 유전체 분석을 통해 200여 개의 변이(SNP)를 확

보했다. 이어 확보한 변이를 기반으로 대량의 인삼 유전자원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15세트의 케이에이에스피(KASP)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이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분석용 장비로 하루 15만점을 분석할 수 있어 기존 분자표지를 이용했을 때보다 분석 기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농진청은 새 분자표지를 특허출원한 뒤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에서 보유한 인삼 유전자원 1300계통의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해 인삼 육종에 필요한 핵심 집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동운 인삼과장은 "인삼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자원 증폭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극대화한 핵심집단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를 바탕으로 핵심집단을 선발해 우수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유전정보를 통한 인삼 분자육종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12대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12일 협회 8층 회의실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전건협 전북도회 선관위원회 회의 마무리

내일 김태경 회장 연임 최종 의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제12대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12일 협회 8층 회의실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엘제이건설산업 이종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원으로는 (유)대야건설 이금용 대표이사, (유)대재토건 최민홍 대표이사, (유)삼국건설 백연기 대표이사, (유)에버그린월드 이화령 대표이사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2대 회장선거를 위한 회의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제1차(2020. 9.16) 회의에서는 선거관련 주요 방침과 일정, 그리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해 논

의됐고, 제2차(2020. 9.22) 회의에서는 회장 선거 입후보자 확정 및 기호 선정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날 진행된 최종 제3차 회의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대 도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현임 김태경 회장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입후보 확정 후 단독 후보로써 기호 1번을 부여해 사실상 현임 김태경 회장의 연임을 공인했다. 도내 2,700여 전문건설업체를 대변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임 김태경 회장의 연임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지역암센터

국가암검진 수검 장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전북지역암센터가 '2020 국가암검진' 수검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센터장 유희철)는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국가암검진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2020 국가암검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2020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할 수 있는 암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으로 암종별로 검진대상과 주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지역암센터는 전북도민 중 2020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400명에게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응모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접속 후 응모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유희철 센터장은 "암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기에 맞게 암검진을 받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수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